

중국의 제3차 「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」

1. 제3차 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의 개요 및 추진 배경

가. 개발계획의 개요

- 중국 국무원은 2009년 11월 16일 <중국 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 강요 : 창지투를 개발·개방의 선도구로>¹⁾(이하 ‘개발계획’)을 정식 통과시켰음.
- ‘개발계획’은 창춘(长春)-지린(吉林)-투먼(图们)(이하, ‘창지투’)을 개발 및 개방의 선도구로 삼아 노후 산업기지인 동북 3성의 ‘동북진흥’을 추진함과 동시에 계속 추진되어 온 두만강구역 합작개발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자 마련되었음.
- 이러한 목적을 위해 두만강구역과 지린성의 창춘지린·투먼을 “일체화 전략”을 통해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함.
- ‘창지투’ 선도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,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지역인 훈춘(珲春)시를 개방창구로 하고, ‘연길(延吉)-용정(龙井)-투먼(图们)’ 삼각지를 개방의 전진기지로 하며, 창춘과 지린 양대 대도시를 직접

1) 본 계획의 원문은 <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开放纲要 - 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>이다. 따라서 번역시 ‘두만강’이 아닌 ‘투먼강’으로 해야 하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, 또한 연합뉴스(2008년 11월 28일)에 따르면 서길수 서경대 교수의 ‘백두산·압록강·두만강 국경 연구’를 주제로 한 논문(고구려발해학회 발표논문)에서 면적상 북한의 모래섬이 전체의 85.5%를 차지(중국의 6배 이상)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‘투먼강’ 대신 ‘두만강’으로 번역하기로 한다. 다만 투먼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는 지린성의 투먼시를 의미한다.

적인 배후지로 하여 개발 및 개방의 파급효과가 국내외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함.

□ 계획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'창지투' 선도구를 장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동북진흥의 중요 성장극이 되도록 개발함.

- '창지투' 선도구 개발로 인해 2020년까지 경제총량이 2배 이상 증가하고, 기초 공공서비스 체계가 크게 개선되며, 중국 동북지구에 △신형 공업기지, △현대적인 농업시범기지, △과학기술 창조기지가 건설될 예정

□ 동시에 '창지투' 선도구는 동북아 개방을 위한 새로운 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됨.

- '창지투' 선도구의 개발우세가 변경지구의 우세와 서로 결합되어, △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제물류통로를 개척하고, △변경지구 국제경제협작모델을 탐색하며, △두만강구역의 합작개발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, △전국의 변경지역 개발과 개방을 위한 경험을 제시하게 됨.

- 개발 및 개방의 파급효과가 북한, 한국, 일본에까지 이어져, 두만강구역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 경제 및 기술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 개방의 거점역할을 담당하게 됨.

<그림 1> '창지투' 선도구 구역의 위치 및 영향도



출처 : 辽宁振兴网(<http://www.lnzb.gov.cn>),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将打造东北振兴重要增长极, 2009.11.18

나. '개발계획'의 추진 배경

1) 중국의 지속적인 두만강구역 개발노력

□ 두만강구역 합작개발은 일찍이 중국의 중요한 국가전략으로, 1992년 UNDP의 주도하에 1차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래 이번에 제3차 '개발계획'을 발표한 것임.

- 1차 개발계획은 훈춘시를 대상으로 수립되었고, 1999년도의 제2차 개발계획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대상으로 수립되었으며, 2009년도의 3차 '개발계획'은 지린성의 창춘시와 지린시를 두만강 합작개발 범위에 포함시켰음.

2) 동북 3성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

□ 중국 정부는 노후한 공업기지인 동북 3성-랴오닝성(辽宁省), 지린성(吉林省), 헤이룽장성(黑龙江省)-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중국의 3대 도시군²⁾에 이은 4대 경제구로 집중 육성하고자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진흥정책과 계획을 발표하였음.

□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7년 8월 20일 "동북지구진흥계획"(东北地区振兴规划, 이하 '진흥계획')을 공식 발표하였으며, 2009년 11월 16일 국무원은 '진흥계획'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본 '개발계획'을 발표하게 되었음.

- '진흥계획' 세부계획에서 북한 및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두만강구역 합작개발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음.

3) 동해 진출권 획득을 위한 노력

□ 1992년의 한·중 수교 이후 북한 정부는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을 금지하면서 지금까지 동해 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.

2) 중국의 3대 경제지대이자 도시군은 주강삼각지대, 장강삼각지대, 베이징-톈진-탕산(京津唐)지대임.

- 중국의 동해 진출권 회복은 물류 차원에서 '창지투' 선도구의 성공적인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주며, 중국은 이미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동해에 진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.

<그림 2> 3국이 만나는 훈춘 변경지역



출처 : <http://www.lvyou114.com/map/3/3607.html>

2. '개발계획'의 세부내용

가. '창지투' 선도구의 일체화 발전을 위한 산업체계 구상

1) 산업체계 핵심 구상

□ 발전계획에 따르면, △산업구조를 개선하고, △현대농업 및 특색농업을 기초로 하며, △선진제조업과 △현대서비스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산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힘.

- 계획 추진을 위해 △지린성에서 두만강합작개발은행(주) 설립을 연구하여 조건이 성숙되는 대로 은행설립을 인가하고, △창업투자 기금 마련을 위해 두만강합작개발신탁기금을 조성하고, △해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선도구 내에 지사 설립을 독려하며, △프

로젝트 파이낸싱 기관들을 유치한다고 밝힘.

2) 8대 신형 공업기지 건설 구상

□ 핵심경쟁력을 갖춘 △자동차, △석유화학, △농산품가공, △전자정보, △합금건재, △장비제조, △생물, △신재료 등 8대 신형 공업기지를 구축함.

- 계획대로 진행되면 전통산업이었던 자동차 및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.

3) 현대서비스 산업 구상

□ 산업 영역을 확대하여 △현대물류, △특색여행, △문화창의, △서비스 아웃소싱, △비즈니스 회의 및 △금융보험업을 발전시키며, 그 중 현대물류 및 특색여행 산업이 큰 관심을 끌고 있음.

□ 발전계획은 물류업과 관련하여 현대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물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음.

- 현대물류네트워크의 기본 체계는 △창춘-훈춘을 양극으로 하고, △지린, 둔화(敦化), 연변을 중요 물류결절지로 삼으며, △훈춘-하얼빈-다롄과 동부교통노선 등 교통간선에 의탁하며, △서쪽으로 내몽고에 접하고, △북쪽으로 스핀허(绥芬河)와 만주리(满洲里)에 연결되고, △남쪽으로 다롄 및 단둥항으로 통하는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함.

- 동시에 대형 물류기업을 연길-용정-두만강과 훈춘시에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동북아의 국제물류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.

-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유관부문에 따르면, 국가차원의 동북지구 물류 전문계획의 전기(前期)연구가 이미 시작되었으며, 앞으로 여러 개의 물류센터와 결절도시 및 중점물류단지

를 건설하고 통일적인 물류정보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인데, '창지투' 선도구는 그 중 중요한 일부가 될 것으로 보임.

- 발전계획은 또한 구역내 독특한 여행자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생태관광, 민속관광, 눈축제 및 변경지역 관광을 주제로 하고, 장백산 자연보호구, 송화호 풍경명승구, 징위예탄(淨月潭) 산림공원을 중점으로 하여 특색여행 산업지대를 형성하고자 함.

나. '창지투' 선도구의 개방을 위한 '개발계획'

1) 개방을 위한 창구도시와 지원도시 육성

- 훈춘시를 개방을 위한 창구도시 역할을 담당하도록 발전시킴.
- 창춘시와 지린시가 훈춘시 지원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두 개 시를 육성함.
 - 두 개 시의 훈춘시 지원 능력을 강화하도록 선택적으로 관련 산업을 훈춘시로 이전하고, 기업들이 대외 통로를 이용하여 국제물류업을 전개하도록 지원할 방침임.
 - 두 시의 과학기술 · 인재 · 산업우세를 발휘하여, 창춘 동북신구와 지린 북부공업신구를 조성하고, 창춘-지린국가중점개발구를 건설하여 두만강구역의 자원이 집중하도록 함.
 - 또한 새로 조성된 공업구가 산업 및 과학기술 창조를 위한 기지, 국제물류허브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 기지가 되도록 함.

2)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구상

- '창지투' 선도구의 성공적인 개발 및 개방은 이후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위한 기초가 됨.

□ '개발계획' 수립에 직접 참여한 리우슈밍(刘庶明) 연구원이 지린성 위원회와 지린성 정부에 '개발계획'을 발표하면서 미래에 '두만강지구 국제자유무역지대'의 건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- 첫 번째 단계로, 중국, 일본, 한국, 러시아 사이의 국외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고, 두 번째 단계로, 구역경제의 일체화를 추동하여 두만강구역 국제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함.

3. '일체화 발전' 전략 추진을 위한 교통기반시설 구축

가. 동북지구 동부변경철로 건설 추진

□ 발전계획에서, 적절한 시기에 국경을 넘는 교통운수프로젝트 합작건설을 시작하여, 서둘러 동북지구 동부변경철로(东北地区东部边境铁路)와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점차 중국 동북지구의 새로운 국제통로를 만든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음.

- 발전계획에서 밝힌 '동북지구동부변경철로'는 원래의 노선계획이 헤이룽장성의 무단장시(牡丹江市)에서 시작하여, 지린성의 투먼과 통화(通化) 및 랴오닝성의 단둥, 장허(庄河)를 통과하여, 남쪽으로 다롄시에 이르는 전장 1,380km의 노선이었으나, 후에 동북3성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계획노선보다 더 길어진 2,322km로 수정되어 그야말로 진정한 동북3성 동부변경 지역을 관통하는 교통대동맥이 되었음.
- 현재 동북지구 동부변경철로의 지린성 구간이 이미 완공되었음.
- 러시아 접경인 헤이룽장성 동녕현(东宁县)에서 수이펀허(绥芬河)를 거쳐 북러 접경지역인 훈춘시를 잇는 3개 통상구를 연결하는 황금통로(도로)가 작년 말에 개통되었으며, 올해에는 이 구간의 철도 건설을 시작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동북지구동부변경철로와도 연결됨.

<그림 3> 동북지구동부변경철로 노선도



출처 : 丹东新闻网(<http://dandong.nen.com.cn>), “园区优势”, 2008.08.19.

나. 중국-몽고간 대륙횡단철로 빠르면 올해에 착공

- 발전계획에서 중몽대통로(中蒙大通道)로 불리는 중국-몽고간 대륙횡단철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, 이미 전기 준비단계에 진입하여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에 착공하게 됨.
- 새롭게 건설될 중국-몽고간 대륙횡단철로는 중국 내몽고의 얼산(阿尔山, Erxan)에서부터 몽고 초발산(乔巴山, Choybalsan)에 이르는 구간으로, 중국내 기존의 개통구간과 연결되면 전 구간은 <유럽-몽고-중국의 썩안명(兴安盟)-바이청(白城)-송위엔(松原)-창춘-지린-연변-러시아-북한-동해>가 되며, 중간에 투먼시와 훈춘시를 통과하게 됨.
- 창춘에서 지린에 이르는 고속철도가 건설 중에 있으며, 지린에서 투먼에 이르는 고속철

도가 2010년에 착공될 예정임.

- 중국-몽고간 대륙횡단철로가 개통되면 중국 동북지역과 유럽을 관통하는 새로운 대동맥이 될 뿐만 아니라, 두만강 지구의 개발 및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을 촉진하게 됨.

다. '창지투' 선도구에서 건설 중인 기타 교통기반시설

- 현재 창춘에서 투먼에 이르는 415km의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되었으며 올해에 다시 훈춘까지 개통될 예정으로, 설계속도는 시속 300km임.
- 창춘-지린 내륙항이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으며, 현재 건설 중인 훈춘항은 러시아 철도와도 연계될 예정임.

4.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과제들

가. 주변국과의 순조로운 대외 협력관계 구축

- 두만강지구의 개발에 있어서 러시아, 북한 및 몽고 등과의 순조로운 대외 협력관계 구축 및 추진이 관건임.
- △중국-몽고간 대륙횡단철로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에서부터, △국제경제협력구도의 건설 추진, △자원협력개발이용의 강화와 △환경부문의 협력, △문화 및 관광 등 부문의 교류와 협력, △두만강구역 국제협력체계의 창조 등 6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함.
- 현재 중국, 러시아, 북한 모두에 유리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3국의 협조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,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고, 북한 내 상황이 불안정적 이어서, 두만강구역의 협력개발은 장시간을 필요로 함.

나. 산재한 제약요소들을 극복해야 함

□ '창지투' 선도구와 훈춘 개방창구는 극복해야 할 여러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음.

- 제약요소로는 △변경지구 경제총량이 크지 않으며, △대외운수도로가 원활하지 못하며, △내지(창춘과 지린)와 전진기지(연길, 용정, 투먼)의 연동이 불충분하며, △인구밀집도가 높지 않고, △산업경쟁력이 강하지 않고, △국가간 협력체계 창조능력이 부족하며, △국제적인 지역 합작개발을 유효하게 지원할 수 없음.

다. 환경파괴 문제

□ 두만강구역의 합작개발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인위적 파괴를 피해야 함.

-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인 빠오밍후아(包明华)에 따르면, "동북지구는 풍부한 습지 및 산림자원이 있어서, 어떠한 경제발전도 환경파괴를 대가로 해서는 안되며,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된다."고 경고함.

<참고자료>

新华网, 2009/11/25, 《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》(全文)
21世纪经济报道, 2009/11/18, 建长吉图先导区, 首个沿边规划获批国家战略
21世纪经济报道, 2009/11/18, 长吉图布局, 八大新型工业基地
21世纪经济报道, 2009/11/23, “长吉图”意在东北亚中蒙大通道有望明年动工
中国经济时报, 2009/12/02, 图们江开发应寻找多国利益契合点
中国经济时报, 2009/12/02, 长吉图 辽宁沿海经济带共促东北振兴
中国经济时报, 2009/12/02, 图们江区域国际合作, 打开经济发展出海口
延边信息港, 2010/1/15, 举全省之力十年内实现长吉图跨越发展
新华网, 2009/11/18,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将打造东北振兴重要增长极

(자료 정리: 조성찬 / 중국인민대학 토지관리학과 박사과정)